

중국의 한국어 문법 사전 용례에 대한 언어문화 분석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를 중심으로-



이 화 숙(대구가톨릭대학교)
(kkokkomai@daum.net)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중국에서 편찬한 한국어 문법 학습 사전,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 수록된 용례를 언어문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는 910여 개의 조사와 어미, 접사 등의 문법 형태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에는 단어와 구 그리고 문장 형태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장의 형태로 제시된 용례는 약 4,612이다. 특히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례 중에는 특수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 이 글에서는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 중에서 중국 조선족의 사회 문화적인 장면을 반영하는 용례를 구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은 중국의 조선족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사전이 집필자의 언어 직관과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는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에 대한 언어문화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중국에서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는 데에는 기반이 되었던 농경문화가 용례를 통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개혁개방 이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인 면모도 용례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 밖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화어의 영향으로 보이는 용례들이 있었는데 전쟁과 전투 혹은 통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韩国语实用语法

词典》의 용례는 한국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표현한 것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법 사전, 언어문화,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배경, 한국어 사전 용례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글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학습용 사전 중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을 대상으로 용례에 반영된 언어문화를 분석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현지화 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한국어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한국 사회의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언어문화는 한국어의 내용을 형성하는 동시에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맥락이기도 하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 언어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언어문화는 지식으로서 학습의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언어문화라는 관점에서 특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찍부터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와 인적 교류가 빈번했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지역 중 하나이다(이화숙 2013, 224). 특히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북 삼성(東北三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초기 소수민족의 언어로서 ‘조선어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민족어로서의 ‘조선어(교육)’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라는

새로운 맥락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색 있는 현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은 ‘조선어’와 ‘조선어 교육’의 의미를 대체하는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학술 논문이나 교재, 학과명에 쓰인 언어의 명칭을 살펴보면, ‘한국어’, ‘조선어’, ‘한국어(조선어)’, ‘조선어(한국어)’, ‘한국어-중국 조선어’, ‘중국조선어와 한국어’ 등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어’의 개념이 중층적이며,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조선족 사회의 언어문화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¹⁾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은 2009년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에서²⁾ 출판한 한국어 학습용 문법 교재로서 910여 문법 형태가 수록되어 있다.³⁾ 이 사전은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사전에 수록된 용례에는 중국과 조선족 사회의 언어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사전 편찬에 참여한 조선족 연구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용례 형성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조선족 교수들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여 질적으로 심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활발하게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고 있는 것은 현지 한국어 교육자의 공헌 덕분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은 물론 교재를 개발하여 편찬하는 등 중국의 한국어 교육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에는 조선족의 사회와 문화적 장면이 반영된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역사적 사건과 기관, 지리적 기념물 등과 정치 경제적 요소는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김정숙 1997, 321). 중국에서 발간한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는 중국의 문화와 정치,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문법적인 요소는 한국어이지만 그 내용은 중국, 특히 조선족 사회와 관련한 언어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 수록된 용례를 대상으로 이 사전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1) 김영옥(2003)과 이상혁(2013)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조선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2)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는 1979년 북경외국어대학이 설립한 교육용 도서 전문 출판사이다.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어 교재를 비롯해서 각종 사전류와 지습서 등을 활발하게 출판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어 교재 전문 출판사로서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 3)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 수록된 문법 형태의 수는 “本词典共收录了韩国语语法形态910多个。”라고 한 ‘使用說明’의 ‘概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이하 《语法词典》)은 ‘前言使用说明语法形态附录一附录二’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한국어 문법 학습을 위한 이중 언어 사전이다. 사전에서 문법 형태를 표기하고 용례를 제시하는 데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의미 범주와 결합정보, 용법 설명은 중국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용례는 한국어 문장과 중국어 번역문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语法词典》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语法形态’ 부분이다. ‘语法形态’에는 910여 개의 조사와 어미, 접사 등의 문법 형태가 수록되어 있어 이 사전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语法词典》은 문법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문법 형태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문법 항목을 조사나 어미, 혹은 격조사와 보조사,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등의 범주 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것은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와 같은 구성이다.

《语法词典》에는 표제어로 제시한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와 문법적 범주, 결합 정보, 용례가 하나의 표제항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 표제어에는 ‘【参照】’, ‘【区别】’, ‘【注意】’ 부분을 마련하여 문법적 오류나 유사 문법이 쓰인 용례도 학습자의 참고를 돕기 위해 함께 수록해 두었다.

《语法词典》 표제항의 구성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语法词典》의 표제항 구성

① 표제어	가 ¹ /이
② 의미와 범주	主要表示行为或状态的主体的主格助词。
③ 결합 정보	元音后加“가”，辅音后加“이”。
④ 용법	1. 主要表示主语的格助词，即表示行为或状态的主体。这是它的基本用法，大体有以下几种情况： (1) 表示行为的主体，即动作是由主体发出的。如：
⑤ 용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工人们在工厂制造汽车。 아이들이 길에서 논다. 孩子们在路街上玩儿。 새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다. 鸟儿在蓝天飞翔。 소가 수레를 끌고 간다. 牛拉着牛车。

《语法词典》의 표제어는 한국어 문법 형태이다(표11의 ①참조). 표제어 아래에 행을 나누어 문법적 의미와 범주, 결합 정보와 용법 등을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다(표11의 ②③④ 참조). 용례에는 보통 3개 이상의 문장을 제시하고⁴⁾ 중국어 번역을 나란히 제시해 두었다(표 11의 ⑤참조). 《语法词典》에 문장 용례는 약 4,612개가 수록되어 있다.⁵⁾ 이 글에서는 《语法词典》에 용례로 수록된 4,612개의 문장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문화에 우선 주목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위해 《语法词典》을 정독(精讀)하는 데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语法词典》 전부를 정독하여 이 사전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정독을 통해 약 860여 개의 용례에 중국 조선족 사회가 갖는 문화적 특성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물산이 매우 풍부하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 경제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장백산 토산물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경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등 《语法词典》의 860여 개의 용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다.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용례가 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아 문화어가 반영된 용례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용례도 다수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용례를 근거로 한국의 언어문화적인 맥락을 벗어난, 《语法词典》에 반영된 특수한 언어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간행한 한국어 교재에 이러한 내용의 문장이 반영된 것에 대해 이민덕(2008)과 이주화·전나영(2011)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주화·전나영(2011)은 ‘중국식 한국어 교재’, ‘教材本土化’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 교재에 수록된 예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다양한 문장 표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문법 사전일 것이다. 문법 사전이 문법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맞는 다양한 문장을 예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장 표현을 생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语法词典》에 수록된 용례가 반영하고 있는 언어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문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특색 있는 현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국식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4) 《语法词典》에는 “오늘 누가 오느냐?” “선생님이 오신다.”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픉니다.”와 같이 대화가 용례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5) 《语法词典》에 수록된 문장 용례의 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것으로, 다소에 차이가 날 수 있다.

3. 선행연구

언어는 세대 간에 문화를 전수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정한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규범, 가치, 역사, 지식 등을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언어를 통해 공유된다. 언어문화는 문화의 공유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로서 언어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언어문화 연구는 주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방한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오지혜 2007; 윤여탁 2015).

해외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한국어 문법 교재가 활발하게 출판되기 시작했다(왕단 2007). 이들 문법 교재에⁶⁾ 대한 논의는 주로 문법의 범주 설정과 문법용어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며(왕단 2008; 최윤곤 2011; 정혜 2014), 아직까지 중국에서 간행한 한국어 문법 교재의 용례를 바탕으로 언어문화를 분석한 논의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중국에서 다양한 한국어 문법 교재가 발간되는 것에 비해 문법 사전은 종류가 많지 않으며(최윤곤강준영 2010; 호몽여 2013) 문법 사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에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맞지 않는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는 단편적인 논의는 김영옥(2003), 이주행(2003), 이주화전나영(2011), 이민덕(2008) 등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김영옥(2003)과 이주행(2003)에 의하면, 중국의 한국어 교육이 전환기를 맞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환기를 맞은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과 한국어의 규정이다.

이민덕(2008)과 이주화전나영(2011)은 중국에서 출판한 한국어 문법 교재와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예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민덕(2008)에서는 중국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에 실생활과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용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주화전나영(2011)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 교재의 문제점 중 하나로 비문과 상황에 맞지 않는 예문이 많다는 것을

6) 중국에서 발간한 한국어 문법 교재는 제목에 '語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문법 교재의 예로 崔義秀·俞春喜. 2008. 《國語實用語法》. 延邊大學出版社, 崔義秀. 2009. 《韓國語基礎語法(修訂本)》.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王丹. 2012. 《大學韓國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2012 등이 있다. 이들 교재의 제목에 쓰인 '語法'이라는 용어를 통해 문법 교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화전나영(2011, 283)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문법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문법"이라는 말이 서명에 들어 있는 교재"라고 하였는데, '문법'은 '어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규범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김기중 1990; 최윤갑 1995; 리춘 1997; 여학봉 2009). 중국은 대한민국의 한국어와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어가 그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일상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섞여 있는 곳이다(강주원, 2013). 이러한 언어 규범과 정체성의 공존은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식 한국어 교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밖에서,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화숙 2013). 해외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육 서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어 문법 사전에 수록된 용례를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된 언어문화의 특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한국어 문법 학습을 위한 사전에는 문법적 전형성을 보여주는 용례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용례는 해당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 기억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语法词典》에는 간행지인 중국과 그리고 조선족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특성과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례를 통해 《语法词典》에 반영된 언어문화를 분석하여 중국의 현지화한 한국어 교육 내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韩国语实用语法词典》용례의 언어문화 분석

중국에서 문법 교재를 출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인 필자를 중심으로 중국 원작의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한국에서 제작된 교재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이다(최윤곤·강춘영 2010, 558). 《语法词典》은 중국의 연구자에 의해 간행된 중국이 원작인 사전이다. 《语法词典》을 집필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언어 문화적 직관과 지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⁷⁾ 조선족 연구자가 《语法词典》을 집필한 만큼 조선족 사회의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이

7) 《语法词典》의 저자는 许东振과 安国峰이다. 저자 중 许东振은 《朝鲜语实用语法》(1976), 《朝鲜语实用语法》(1995), 《新编朝鲜语实用语法》(1995)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최윤곤·강춘영(2010)에 의하면 《朝鲜语实用语法》(1976)은 최초의 한국어 문법교재로서 이후에 출판된 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용례를 통해 드러난다.⁸⁾

선행 연구에서는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예문을 ‘부적절한 예문’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나 학습 상황과 동떨어진 장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적절한 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위해 《语法词典》의 용례가 ‘적합한가?’라는 문제제기는 보류하고자 한다. 그보다 먼저 이러한 용례가 형성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중국의 한국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문장은 《语法词典》에 수록된 용례의 일부이다.⁹⁾ 한국어 문법에 맞는 문장이지만, 그 내용은 다소 생소한 느낌을 준다.

이 버스 회사 승무원들은 언제나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 준다.(34)

그 애는 키가 큰데 중학생이 아니라 소학생이래요.(274)

상학중이 울리자 학생들은 재빨리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306)

‘버스 회사 승무원’, ‘소학생’, ‘상학중’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이다. 이들 어휘는 이 사전이 만들어진 중국 조선족 사회의 공간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예와 같이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용례가 중국 조선족 사회의 정치와 사회체제 등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¹⁰⁾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그 내용은 중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이 언어를 ‘조선어’라고 하였으나 현재 중국의 한국어 교육이 심화되면서 ‘한국어’라고 지칭하고 있다. 《语法词典》에는 이처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언어 현실과 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용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용례를 언어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8) 이민덕(2008)에서는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재에 수록된 용례에 “현실과는 좀 뒤떨어진 저자 나름의 문화적 정서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길은 승리의 길이다.”, “베이징에서 승리의 소식이 전해 왔다.”, “죽을 지언정 초소를 지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전투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격이었소”와 같은 용례는 구시대적인 정치적 선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9) 이 글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语法词典》의 용례를 옮겨 적은 것이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수정하지 않고, 《语法词典》에 수록된 형태 그대로를 제시하였다.

10) 김기종(1990)에서도 중국 조선족의 언어규범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용어가 이질성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1. 농경문화를 반영하는 용례

《语法词典》에는 농경문화가 반영된 용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다. 과거 중국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는 데 바탕이 된 것은 벼농사 기술이다. 조선인의 벼농사 기술이 동북3성의 지리적 여건과 결합하여, 이 지역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변을 중심으로 일부 조선족 거주 지역은 중국에서 벼농사가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김정길 2005; 정근재 2005; 차성연 2014).

한국어 교육에서 농경문화는 지식문화의 한 부분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일부로 이해하는 주제이다. 때문에 한국어 교재에 읽기 자료로서 텍스트의 형태로 본문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으며,¹¹⁾ 문장 형태로 사전의 용례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다.

《语法词典》에서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농경문화를 반영하는 용례

이곳이 좀 추운지대라 하더라도 물이 있고 햇볕이 쏘이니 벼농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208)

일년 내내 것처럼 알뜰히 거두었는데 다수확을 못 거둘 리 있나요?(330)

이맘때면 고향에선 벼가율이 한창이리다.(333)

한 치의 땅이라도 묵여서는 안된다.(488)

논사란 땅을 잘 다루어야만 소출을 낼 수 있거든.(19)

포전을 알뜰히 가꾸었기에 소출을 높일 수 있었다.(74)

창고에는 옥수수가 50키로 가량 있던데 그계면 씨앗이 자랄가요?(218)

곡식이 잘 자라도록 덧거름을 주었다.(230)

호미도 좋으니 땅을 두질 수 있는 도구이면 됩니다.(228)

그들은 삽과 괭이로 물도랑을 팠다.(305)

늪에 버린 수소는 그래도 느릿느릿 밭으로 향해 갔다.(384)

밭갈이를 다그쳐요, 제때에 씨를 뿌릴 수 있게요.(37)

그들은 벌써 밭을 갈아 번지고 씨까지 다 뿌렸다.(79)

11) 오지혜(2007, 94)에 의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은 읽기와 쓰기 텍스트를 통해 문화를 해설하거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가치화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능력을 배양하고자 문화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을 설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도 지금은 벼모를 잘 낚는단다.(93)
 해마다 모를 낚아 나니 이젠 제법 잘 낚을 수 있게 되었다.(114)
 벼모 싹이 어서 돋기를 바랬다.(329)
 그들은 밭 김을 다 매 버리고 이번에는 논밭으로 갔다.(384)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니 농민들은 밭갈이에 분망했다.(165)
 날이 밝을 제 일밭으로 나갔어요.(253)
 가물이 들었지만 농민들의 노력으로 감산되지는 않았다.(522)¹²⁾
 그들은 새 농업 정책의 관철에 힘쓰고 있다.(489)
 금년도 농업의 수확을 환산하여 보았다.(489)

위의 예문을 통해 언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농사에 대한 지식과 신념은 물론, 태도와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이 있고 햇볕이 쏘이니 벼농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식이 잘 자라도록 덧거름을 주었다.”와 같은 용례는 농사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 농사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용례로 “한 치의 땅이라도 묵여서는 안된다.”, “농사란 땅을 잘 다루어야만 소출을 낼 수 있거든.” 등이 있다. “그들은 새 농업 정책의 관철에 힘쓰고 있다.”를 통해 농사를 대하는 공동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호미도 좋으니 땅을 뚜질 수 있는 도구이면 됩니다.”, “그들은 밭 김을 다 매 버리고 이번에는 논밭으로 갔다.” 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예문에 내포된 농사 지식과 신념, 태도와 실천적인 내용을 근거로 《语法词典》이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용례는 아래 [표 2]에 제시한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표 2] 농경문화를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

어휘	곡식, 갱이, 김, 논밭, 농민, 농사, 농업, 다수확, 덧거름, 밭, 밭갈이, 벼가을, 벼농사, 벼모, 삽, 수소, 일밭, 포전, 호미
표현	김을 매-, 다수확을 거두-, 덧거름을 주-, 땅을 뚜지-, 땅을 묵아-, 물도랑을 파-, 밭을 갈아 번지-, 벼가을이 한창아-, 벼농사가 되-, 벼모 싹이 돋-, 벼모를 낚-, 소출을 내-, 소출을 높아-, 씨를 뿌리-, 씨앗이 자라-

12) 괄호 속의 숫자는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 해당 용례가 수록된 쪽수를 적은 것이다.

[표2]의 어휘와 표현을 살펴보면, 《语法词典》에 농경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농경문화를 반영하는 용례들에는 ‘농민, 농업, 농사’, ‘다수확을 거두-, 소출을 내-, 씨앗이 자라-’ 등 농사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 용어와 표현이 쓰였다. 특히 ‘벼농사, 벼모, 곡식’, ‘벼농사가 되-, 벼모를 꼽-, 벼모 싹이 돋-’와 같이 벼농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어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농사 도구인 ‘호미, 삽, 괭이’는 물론, ‘땅을 두지-, 덧거름을 주-, 땅을 갈아 번지-’처럼 농사일을 표현한 것도 있다.

중국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 배경에는 이들 공동체가 가진 우수한 벼농사 기술이 있었다. 논을 개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조선족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차성연 2014, 218-221). 조선족 사회가 갖고 있는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은 《语法词典》을 집필하는 데도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갖는 문화적 가치는 한국에서도 여전하다. 다만, 한국어 교재에 반영되는 농경문화는 ‘문화 지식’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语法词典》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문법 사전이다. 용례에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조선족 사회가 중국에서 언어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던 문화적 배경이 사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용례

《语法词典》에는 문화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용례들이 있다.¹³⁾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족 사회의 언어 사용과 교육은 문화어의 영향을 받았다(강용택 2014). 일부 조선족 대학에서는 현재에도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문화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한 곳이 있다(한성우 2014).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语法词典》의 용례에 문화어를 반영하는 원인이 되었다. 《语法词典》에서 문화어가 반영된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문화어가 반영된 용례

원썬들에게 죽음을 주라.(273)

노인들의 말이 이 고장은 원래 사득판이었다.(5)

13) 《语法词典》에서 문화어가 반영된 용례는 어휘 형태인 것이 두드러진다. 접사가 표제어인 경우 해당접사와 결합한 파생어와 합성어를 용례로 제시하는데, 이 경우 문화어가 수록되기도 한다. 그 예로는 다리매(각선미), 단고기(개고기), 뜨작하다(뜨악하다), 짓마스다(짓마다), 한속통(한통속) 등이 있다. (표준어를 괄호 속에 병기였다.)

옷을 벗지 않고 건느다가 물에 옷이 젖게?(32)
 그는 지팽이를 잡고서 왔다 갔다 한다.(52)
 올리막 달리기가 시작된다.(70)
 오늘 장마당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구먼요.(151)
 그 애는 엄마를 따라 가겠다고 한참 떼질 썼다.(178)
 우리는 양보할 대로 양보하였지만 대방은 그래도 불만이였다.(196)
 내 댄에는 그만하면 넉넉할 줄로 알았더니 두 키로나 모자라더구먼.(250)
 오빠가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을어구까지 나갔어요.(253)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는가 하면 줄뛰기를 하기도 한다.(366)
 그들이 좀더 일찌기 이 마을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441)
 그날밤 우리 공장에서는 기쁨에 넘쳐 야회가 벌어졌었지.(444)
 사람들은 우등불에 몸을 녹이였다.(459)
 천정의 거미줄을 털었다.(487)

《语法词典》에 문화어가 반영된 것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조선족의 언어생활은 문화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로 인해 《语法词典》에도 문화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예시(2)를 보면, ‘원쑤’, ‘사득판’, ‘건느-’, ‘지팽이’, ‘올리막’, ‘장마당’, ‘떼질’, ‘대방’, ‘키로’, ‘어구’, ‘줄뛰기’, ‘일찌기’, ‘야회’, ‘우등불’, ‘천정’, ‘대방’은 문화어이다.¹⁴⁾ 표준어에서는 각각 ‘원수’, ‘진펄’, ‘건너-’, ‘지팡이’, ‘오르막’, ‘시장’, ‘떼를 쓰-’, ‘상대방’, ‘킬로’, ‘어귀’, ‘줄넘기’, ‘일찍이’, ‘야유회’, ‘모닥불’, ‘천장’으로 쓰고 있다. 《语法词典》의 용례에 표제어와 함께 문화어가 혼용되어 있는 것을 통해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이 갖는 언어 현실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어’와 ‘표준어’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가 ‘한국어’라는 범주 속에 혼재해 있다. 이러한 언어 현실은 중국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가 갖는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语法词典》의 용례 중에는 문화어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언어 표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있다. 아래의 (3)은 중국 조선족 사회가 북한과 맺고 있는 정치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용례들이다.

14) 제시한 문화어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과 《조선말대사전》(1990)을 참고하여 어휘 형태와 의미를 확인하였다.

(3) 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용례

원수들아, 이 땅에서 물러가라.(446)
원수들이 나타나는 족족 쏘아 눕혀라.(511)
한데 뭉쳐 침략자를 물리치자.(498)
죽으면 죽어도 놈들에게 굴복하지는 않겠다.(367)
그들은 정의의 전쟁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487)
적기가 우리 고사포 병사들에게 격추되었다.(2)
그들은 정말 강철의 병사들이었다.(487)
전우들을 실은 차는 멀어져 갑니다.(8)
우리 나라는 평화적 통일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489)

위의 예들을 통해 《语法词典》에서 조선족 사회의 특별한 정치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원수들이 나타나는 족족 쏘아 눕혀라.”, “우리 나라는 평화적 통일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와 같은 용례는 한국의 국어사전이나 한국어 학습사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¹⁵⁾ 특히 용례에 쓰인 ‘통일’이라는 어휘는 한국어 학습자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어휘이다. (3)에서 ‘통일’이 쓰인 용례를 보면, ‘노력하-’라는 동사를 통해 주체의 태도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시(3)에 제시한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법의 특징으로 주체의 태도와 가치 판단 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말대사전》(1990)과 《조선말사전》(1995)의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법의 특징은, 한국에서 발간한 여타의 국어사전과 한국어 사전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서법과 차이를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통일’에는 “남북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이 용례로 제시되어 있다.

《语法词典》에는 용례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용례가 말뭉치에서 가져온 인용례인지 저자가 따로 집필을 한 창작례인지 알 수 없다. 짧은 문장 속에 표현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출처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문장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이질화하면서 조선족 사회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리룡해·왕청청 2006).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는 교육과 출판 등 공공의 영역과 언어생활의 전반에 문화어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위의 (3)에 제시한 용례들은 과거 문화어로 쓰여졌던 문장들이

1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집안은 대대로 원수 사이이다.”, “남북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와 같은 사실적 진술이거나 당위적 표현이 수록되어 있다.(표제어 ‘원수’와 ‘통일’에 제시된 용례임)

《语法词典》의 용례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들 (3)에 제시한 용례들은 아래 [표3]에 있는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표 3] 정치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

어휘	고사포, 놈들, 병사, 부대, 원수, 원쑤, 전우, 전쟁, 전투, 침략자, 통일, 투사, 폭파
표현	고사포 병사, 강철의 병사, 정의의 전쟁, 평화적 통일의 완성 생명을 바치다, 쏘아 눅혀라, 죽음을 주라, 침략자를 물리치자

위의 [표3]은 《语法词典》의 용례에서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어휘와 표현을 제시한 것이다. ‘병사, 전우, 고사포, 부대’는 소위 군대 용어라 할 수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제도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놈들, 원수, 원쑤, 침략자’는¹⁷⁾ 특정 대상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지칭으로, 전투나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쓰이는 어휘들이다. ‘쏘아 눅혀라, 죽음을 주라, 물리치자’와 명령 혹은 청유의 표현은 다소 감정적이면서도 선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북한의 〈로동신문〉의 설득적 표현과 그 느낌이 유사하다.¹⁸⁾

[표3]에 제시한 어휘와 표현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인이 일상적인 장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어휘는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문화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결과 《语法词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 정치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 용례들은 보통 북한의 신문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16) 《조선말사전》(1995)에는 혁명투쟁과 항일투쟁에 대한 조선족의 역사를 기록한 《회상기》에서 인용한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 ‘원쑤’에는 “우리 유격대는 도처에서 원쑤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면서 광범한 인민들 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 용례의 출처를 《회상기》라고 밝혀두었는데, 《语法词典》에서 정치적 특수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용례들과 서법이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17) ‘원수’와 ‘원쑤’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표준어와 문화어의 형태이다. 표준어에서 ‘원수’가 元首와 怨讐를 나타내는 동음이의어로 쓰이는 것에 비해, 문화어에서는 元首를 뜻할 때는 ‘원수’로, 怨讐를 뜻할 경우 ‘원쑤’로 어형을 달리하였다. 《语法词典》에는 怨讐를 뜻하는 표준어와 문화어인 ‘원수’와 ‘원쑤’가 함께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18) 이주행(2003, 304)에서는 “조선족이 구사하는 문장 중에는 북한인이 구사하는 문장과 유사한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 예로 “정부가 환경보호의 감독으로 되고 전문기술을 가진 환경보호회사가 주요책임자로 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북한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3.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용례

《语法词典》에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용례들이 있다. 특히 1978년부터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조선족 사회의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자 한 시대적 실천들이 《语法词典》에도 용례를 통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혁개방은 조선족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생활의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변화 양상이 《语法词典》에 한국어 용례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语法词典》에서 중국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용례

개혁 개방 이후 우리 나라 경제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33)
농촌에서까지 수도화를 실현하였다.(79)
올해 안으로 이 산간 벽지에도 전기를 놓아 준대.(193)
장백산 토산물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경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338)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발전 도상에 있습니다.(523)
우리 나라는 외래 자본을 인입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338)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나아가 비농업 산업에 종사한다.(306)
근래에 와서 농촌에서는 많은 농촌 기업들을 일떠 세웠다.(431)
소문에 떠도는 말마따나 이 고장에도 큰 공장이 설 모양이더라.(344)
여기는 옛날에 황무지던데 지금은 공업 개발구로 되었구나.(218)
오래지 않아 이곳에 큰 공장이 선다고 한다.(420)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을에도 노인회관이 선다고.(177)
듣건대 우리 고향 마을에도 문화 회관이 새로 섰다 합디다.(25)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과학 기술의 고봉을 향해 힘차게 달리자.(498)
우리 나라에서 과학을 흡수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213)

위의 (4)에 제시한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중심은 ‘개혁 개방’이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 나라 경제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용례는 《语法词典》이 간행된 조선족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나라는 외래 자본을 인입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과학을 흡수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등의 용례에서 가리키는 ‘우리 나라’는 중국이다. 아울러 《语法词典》의 용례(4)의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을에도 노인회관이 선다고.”, “듣건대 우리 고향 마을에도 문화 회관이 새로

섰다 합디다.”등에서 ‘우리 마을’, ‘우리 고향 마을’은 조선족의 생활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의 용례들은 조선족 사회가 한족(漢族)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역사의 일부임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의 한국어 교육이 갖는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语法词典》이 반영하는 언어의 외연은 한국어가 맞다. 하지만 그 내연을 살펴보면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이고도 역사적인 차이에서 오는 내연의 차이를, 한국어 교육이라는 범주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의 (4)에 제시한 용례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어휘와 표현들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

어휘	개발구, 개혁 개방, 경제, 공업, 공장, 과학, 기술, 기업, 발전, 부강, 산업, 수도화, 자본
표현	경제의 도약, 나라의 부강, 비농업 산업, 외래 자본 경제를 발전시키-, 공업 개발구로 되-, 과학을 출시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 노인 회관이 서-, 농촌 기업들을 일떠 세우-, 문화 회관이 새로 서-, 발전 도상에 있-, 수도화를 실현하-, 전기를 놓-, 큰 공장이 서-

위의 [표 4]는 《语法词典》에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들이다. [표 4]에서 ‘경제’, ‘과학’, ‘자본’과 같은 어휘들은 일반 명사이지만, ‘개혁 개방’이라는 중국 현대사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978년 등소평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혁 개방’은 1980년대부터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수도화’, ‘농촌 기업’, ‘전기’, ‘마을 회관’ 등은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이들 어휘는 ‘개혁 개방’을 겪으면서 조선족의 언어 공동체가 체험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도약’, ‘나라의 부강’은 용례 “장백산 토산물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경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 과학 기술의 고봉을 향해 힘차게 달리자.”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농촌 기업’, ‘노인회관’, ‘문화 회관’이 들어서고, ‘수도화를 실현’하는 한편 ‘전기를 놓’는 등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위의 [표 4]에 있는 어휘와 표현이 쓰인 용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语法词典》의 용례를 통해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맥락과 조선족 사회의 실천을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이 글은 중국에서 편찬한 한국어 문법 학습 사전,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 수록된 용례를 언어문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는 910여 개의 조사와 어미, 접사 등의 문법 형태가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에는 단어와 구 그리고 문장 형태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장의 형태로 제시된 용례는 약 4,612이다. 특히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례 중에는 조선족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정치 역사 등 한국의 맥락과는 다른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 중에서 중국 조선족의 사회 문화적인 장면을 반영하는 용례를 구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서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인 장면이 반영된 용례는 주로 ‘벼농사’와 관련한 농경문화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농사 일반과 관련한 ‘농민’, ‘농업’, ‘농사’, ‘벼농사’, ‘벼모’, ‘곡식’ 등의 어휘와 ‘소출을 내-’, ‘씨앗이 자라-’, ‘벼농사가 되-’, ‘벼모를 뽑-’, ‘벼모 싹이 돋-’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용례에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 용례를 통해 농경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물론 가치인식과 실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에는 문화어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과거 조선족의 언어규범화 과정에서 문화어를 대폭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어뿐만 아니라 용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북한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원수들이 나타나는 족족 쏘아 눕혀라.”, “우리 나라는 평화적 통일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와 같은 용례가 반영하는 의미를 통해 조선족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현대 역사를 반영하는 용례도 《韩国语实用语法词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개혁 개방 이후 우리 나라 경제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나라는 외래 자본을 인입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와 같은 용례는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용례에서 ‘수도화’, ‘농촌 기업’, ‘전기’ 등의 어휘와 ‘공업 개발구로 되-’, ‘발전 도상에 있-’, ‘큰 공장이 서-’와 같은 표현들이 개혁개방의 역사적 실천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기여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간한 한국어 문법 사전인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를 바탕으로 이 사전에 반영된 언어문화를 분석하였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 중에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특수한 정면을 반영하는 문장들이 있었다. 이 글은 중국의 한국어 교육의 성과와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조선족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¹⁹⁾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는 문화어와 표준어 그리고 조선어가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문법적으로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선족이 갖는 문화적 배경과 문화어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체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한국어 교육자들은 역사와 사회 문화적인 특수성을 인정하여 중국식 한국어 교육을 정립하지는 의견과 함께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 즉 조선어를 순화하자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박춘설 2010). 중국은 문화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가 역동적으로 섞여 있는 곳이다. 이러한 언어와 정체성의 공존은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식 한국어 교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족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중국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과거 문화어의 영향을 받으며 역사를 기록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韩国语实用语法词典》의 용례는 한국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표현한 것이 반영되어 있었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분화하고 있는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조선족 교수와 한인(漢人) 교수, 한국의 한국어 교수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는 물론 중국이라는 현지의 교육 환경이 갖는 특수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중국에서 발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용례에 반영된 언어문화를 분석하여 중국에서 현지화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 홍윤표(2010)에서는 중국 조선어 어문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먼저 중국 조선족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강용택. 2014. “중국조선어의 어휘적 특성 형성배경에 대하여.” 『한중미래연구』 2, 3-19.
- 강주원. 2013. “한국어를 공유하는 네 집단의 국민·민족 정체성의 지형- 중·조 국경 도시 단동의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統一問題研究』 25(1), 397-443.
- 국립국어원.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기중. 1990.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 『語學研究』 26(1), 117-145.
- 김기창. 2009. “재중 동포 대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언어 차이 현상.” 『새국어교육』 83, 431-457.
- 김영옥. 2003.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에 관한 고찰.” 『청람어문교육』 26, 253-272.
- 김정길. 2005. “중국 조선족 신문의 민족문화 전승에 관한 연구-연변일보 문화기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317-326.
- 리득춘. 1997. “중국에서의 조선어교육의 급속한 부상과 조선어의 위치(1).” 『중국조선어문』 90, 14-18.
- 리룡해·왕청청. 2006. “몇가지 변수와 중국조선어.” 『중국조선어문』 145, 4-8.
- 리춘. 1997. “중국인용 조선어교재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중국조선어문』 91, 24-27.
- 박춘설. 2012. “중국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한국어와 중국조선어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북한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0.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
- 여학봉. 2009. “중국 내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연구.” 『高鳳論集』 45, 51-64.
- 연변 사회과학원 언어 연구소. 1995.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오지혜. 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83-120.
- 왕단. 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재의 구성과 기술 방법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41-662.
- 왕단. 2008.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중국어 표준화 연구.” 『한글』 282, 277-316.

- 원미진. 2011.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용례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8, 152-173.
- 윤여탁. 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1-22.
- 이민덕. 2008. “한국어 문법용례에 대한 약간의 소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1, 207-216.
- 이상혁. 201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요구되는 몇 가지 언어 문제-한국어 명칭, 규범, 문자, 어휘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6, 49-70.
- 이주행. 2003.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문제-중국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어언문학원 조선어언문학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2, 49-71.
- 이주화·전나영. 2011.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재 분석-교재의 구성과 기술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4, 281-308.
- 이화숙. 2013. “국의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세계화 시대 국외 한국어 교육의 성격 탐색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중언어학』 51, 217-246.
- 정근재. 2005. 『그 많던 조선족은 어디로 갔을까?-중국 속 경상도 마을 기행』. 복인.
- 정혜. 201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기술 연구-교재의 문법기술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어문』 194, 32-38.
- 조항록. 2004.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5.
- 차성연. 2014. “중국조선족문학 연구의 의의 및 문학사 기술의 방향성 모색.” 『국제한인문학연구』 14, 210-231.
- 최윤갑. 1995. “중국에서의 조선어 교육과 사용으로부터 본 조선어통일의 필요성.” 『중국조선어문』 7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4-5.
- 최윤곤. 2011.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의 교재 용어 분석(1)-품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577-600.
- 최윤곤·강춘영. 2010. “중국의 한국어 문법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I)-5종 교재의 품사 분류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한성우. 2014. “중국조선족 사회의 언어 전환.” 『한국학연구』 32, 411-438.
- 호몽여. 2013. “중국 내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홍운표. 2010. “중국 조선어 어문규범 문제에 대한 단상.” 『중국조선어문』 165, 11-17.

● 투고일 : 2015. 11. 9. ● 심사일: 2015. 11. 9. ● 게재확정일: 2015. 11. 16.

**An analysis of language culture on the examples of
Korean grammar dictionary in China
- Focus on the examples of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

Yi Hwasoo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amples of Korean grammar dictionary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published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language culture.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contains entries in grammar forms of about 910 particles, affixes, and so on. Entries are presented in the form of words, phrases, and sentences. Examples in the sentence form are about 4,612. Especially, some examples presented in the sentence form reflect specific political, socio-cultural contents. The study analyzed the examples reflected the socio-cultural scenes of Korean Chinese from the examples of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is written by the Korean Chinese researcher in China. A dictionary is reflected by author's language perspective and cultural background, so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is reflected by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Chinese. The analysis result of language culture on the examples of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are as in the following. At first, it is reflected in the examples of the agriculture based on forming Korean Chinese society in China. After China's economic reform, actively growing China's economic aspects are reflected in the examples. Besides, there are some examples influenced by cultural words using in North Korea which are reflected the contents on the war, the battle and the unification. The examples of 《Korean practical

grammar dictionary》 are written in Korean, but the contents are reflected the culture and the system of Korean Chinese in China.

This study expects to understand the cultural background reflect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 published in China, as well as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China, Korean grammar dictionary, language culture,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Chinese, examples of Korean dictionary